

36회 포럼 토론자료

유장렬(DGIST 초청연구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잠시도 평온할 때가 없이 난리를 피우는 듯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만큼이나 성장하였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난 20여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하였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과연 지구상에 누가 있어 이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랴하는 자만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자부심을 무참히 깨버린 것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이다. 이로 인해 역시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자괴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카이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다. 40년의 짧은 역사로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벌써 이런 자의 과도한 여유와 자만을 감추지 못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의욕도 감퇴된듯하여 카이스트를 볼 때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런 모습대로 라면 빠른 성장만큼이나 퇴보를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카이스트가 연구단지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미션을 망각하고 섬(島)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혼자 잘난 기관이 되어 연구단지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카이스트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 사업이 시작되어 주목을 끈다. 바로 융합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학제간연구가 그것이다.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융합연구테마를 제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KI 빌딩에 공동연구공간을 얻어서 함께 연구에 임하는 것이다. 비교적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해주고 있다. 참여연구자들이 동일한 공간에 모일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너지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리라.

카이스트는 연구단지의 융합연구의 장(場)이 되어야 하고 만남의 광장이 되어야 하며 연구단지의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연구단지의 다른 연구소들은 나름 전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지만 카이스트는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므로 융합연구시대의 허브요 핵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카

이스트의 융합연구원은 카이스트 캠퍼스 내에서의 융합연구에 만족하지 말고 연구단지 전체의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융합연구팀 구성을 카이스트에 한정하지 말고 연구단지 전체로 확장할 경우 더욱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연구소가 부담토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보이므로 카이스트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카이스트는 기존의 융합연구의 재정적 부담을 카이스트를 제외한 참여연구소에 떠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열린 사고를 하고 열린 정책을 펴지 않는 기관은 물을 주지 않은 식물처럼 시간이 경과하면 시들 수밖에 없다. 카이스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구단지의 많은 연구소를 향해 열린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때라고 믿는다.